

**** 박물관 공공·서비스 공간에서의 관람객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Visitors in the Public·Service Space of Museums

이지윤*/ Lee, Ji-Yun
김용승**/ Kim, Yong-Seung
박용환***/ Park, Yong-Hwan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fine out how the museum visitors use the public·service space. And in the sense that their movement in the spaces may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visibility, it uses Isovist in order to fine out the causes on how they move around the public·service space.

The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visitor's movement in the public·service spaces and visibility from a certain point. As far as the public·service spaces are concern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visibility from certain point such as the museum hall or the main entrance

키워드 : 공공·서비스 공간, 박물관, 관람객, 행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한 사회의 박물관/미술관¹⁾의 존재는 그 사회의 문화적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교육적 정도를 가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박물관은 그러한 권위적·상징적 판단의 척도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대중의 문화 욕구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는 하나의 대중문화요소로 점차 그 사용과 의미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박물관의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며 양적 증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는 소득의 증대, 여가의 증가, 가치관의 다양화, 고학력화 등이 문화 수요를 급증시켜 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가 급속한 사회변동과 국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박물관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관람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박물관의 공간 대응이 우선 되어져야 하며, 또한 박물관의 공간적 대응을 위하여 관람객의 특성파악과 박물관에서의 행태분석을 통한 공간구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1.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국·공립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으며, 지방 자치 이후 그 건립은 수적 증가뿐만이 아닌 각 지방을 대표할만한 건축물로써 건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물관들은 16C 이후 하나의 건축 경향으로 자리잡은 박물관 건축 유형의 공간 구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박물관의 과거 권위적 의미에서 사회 문화적 의미로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대중들의 욕구 수용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박물관의 각 영역별 공간구성에 대한 단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박물관과 대중들간의 교류가 가장 원활한 공공·서비스 공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람객의 행태특성 특히 공공·서비스 공간의

* 정회원 한양대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한양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98-0602-04-01-3)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이후 언급되는 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의 통합적 어휘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기능적 차이를 보이나 공간 구성적 유사점으로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공간에 나타나는 관람객의 이용특성 요인을 추출하여 그 원인분석을 통해 박물관의 역할변화에 따른 건축적 대응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공간의 구성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여, 박물관 건축계획에 응용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1990년 이후 건립된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대학 산하 박물관을 제외한 총 29개의 박물관중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규모 (연면적2000m²)²⁾이상의 박물관을 선정했으며 이 범위 내의 박물관(13개)중 국·공립 자치 단체가 설립 운영자인 박물관이 1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자치 단체를 주체로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으므로 연구의 범위는 전국에 분포한 중규모 이상의

<표 1> 조사대상 박물관 개요

박물관/미술관	준공/완공 연도	연면적(m ²)	위치	건축가
광주 시립미술관	1992	12,618	광주광역시	김상식
국립 대구박물관	1994	10,070	대구광역시	장세양
경기 도립박물관	1995	10,153	경기도 용인군	장세양
국립 김해박물관	1998	8,922	경남 김해시	장세양
부산 시립미술관	1998	21,425	부산광역시	이용훈

국공립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5개의 박물관으로 정한다. 또한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2> 박물관 공공·서비스 공간의 종류와 분류

각 설명	1차 서비스	2차 서비스	3차 서비스
	매표소, 안내소, 물품 보관소	정보검색실, 유지업샵, 비디오데크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매점

1.4. 연구의 방법

상기의 목적을 위해 각 박물관의 관람객의 공공·서비스 공간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박물관 관람객의 동선을 분석하며, 이와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공간구성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1) 추적조사

박물관에서의 관람객 행태조사를 위해 관람객이 인식 못할 거리

2)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그 효율성을 위해 많은 기능들을 통합,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서 미흡함이 나타남으로 제외 시켰다. 또한 여기서의 중규모란 서상우의 '현대 박물관 건축론'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연면적 2,000m² 이상을 말한다.

를 두고 박물관에서의 모든 동선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물관에서의 관람객 행태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간에 제한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태특성 요인분석

전시관람의 경우 지식습득의 정도나 전시 방식에 따라 관람객의 동선이 결정되는 반면 '공공·서비스 공간의 사용에서는 관람객의 관심정도나, 시선에 의존하여 동선이 결정된다'³⁾는 가정하에 추적조사를 통해 획득한 관람객의 동선 조사표를 이용한 관람객의 동선결정 요인분석을 위해 시지각도를 이용하였다.

1.5. 조사방법

(1) 관람객의 실태조사

관람객의 박물관 내의 동선을 조사하며 그중 공공 서비스 공간내의 동선 조사를 위하여 추적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박물관 사용이 가장 활발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⁴⁾
- ②관람객이 다수인 경우 1인으로 취급하며, 매표에서 관람, 퇴관까지의 관람자의 모든 동선을 도면 위에 표시한다. 이중 연속적인 다수의 전시실 관람은 하나의 전시실 관람으로 표시하며, 공공 서비스 공간의 이용시 이용시간을 기입한다.⁵⁾
- ③관람자가 퇴관시 설문지를 조사하여, 해당 박물관의 특성과 관람자 특성을 조사한다.
- ④ 추적 조사를 통해 획득한 동선도를 간략화 하여 조사 박물관의 관람자 동선표를 작성하며, 동선표의 공통동선 부분과 자율동선을 구분한다.
- ⑤구분되어진 동선표중 자율 동선부분의 동선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시지각도⁶⁾를 이용하여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공간구성과 시지각도에 의한 동선 결정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2. 공공·서비스 공간 이용 실태

각 박물관의 관람객을 연구의 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분석하여 관람객의 행태특성을 분석하며, 그 원인분석을 통해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공간 구성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3)이한기, 박물관 공공관련 공간의 접근성에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호 1991.4

4)주말과 평일을 합산하여 전체관람객의 70%이상이 이 시간대에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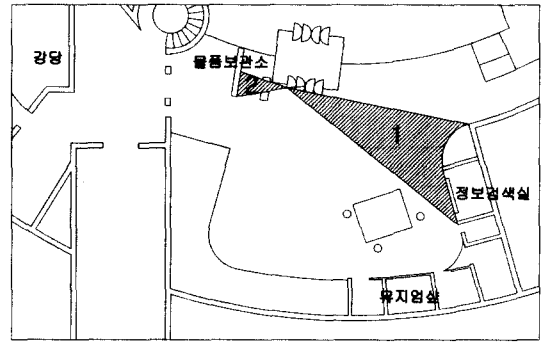
5)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나 친구단위의 관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람행태는 개인관람이 아닌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공간통사론(Space Syntax)중 시각적 분석을 위한 공간 조망도(Convex isovist)로서 본 연구에서는 시지각의 면적을 통한 공간의 분류를 연구하는 도구로의 사용이 아닌 동선 결정 요인 분석의 도구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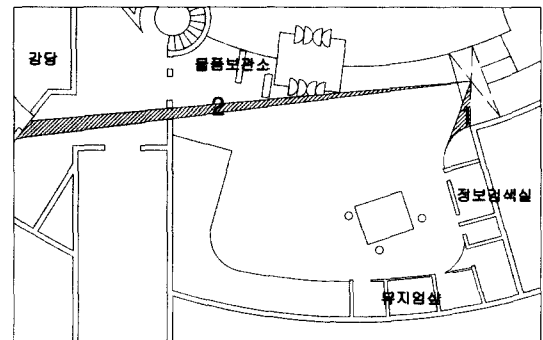
Bill Hillier, Space is the machine: A configuration theory of architectu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153-154.

<표 3> 경기도립 박물관의 관람객 동선표

	a	b	c	d
1	매표소→안내→	물품보관소→정보 검색실→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샴→출구
2	매표소→안내→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홀→출구
3	매표소→안내→	정보검색실→	전시실→실습실→	화장실→출구
4	매표소→안내→	정보검색실→	전시실→	홀→출구
5	매표소→안내→	정보검색실→	전시실→실습실→	샴→전시실→출구
6	매표소→안내→	홀→	전시실→실습실→	샴→출구
7	매표소→안내→	홀→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홀→안내→ 출구
8	매표소→안내→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출구
9	매표소→안내→		전시실→	샴→정보검색실→홀→출 구
10	매표소→안내→	샴→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출구
11	매표소→안내→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홀→샴→홀 →출구
12	매표소→안내→		전시실→실습실→	화장실→정보검색실→출 구
13	매표소→안내→	홀→정보검색→	전시실→실습실→	홀→전시→출구
14	매표소→안내→		전시실→실습실→	정보검색실→홀→출구



<그림 1> 입구와 안내중심에서의 시지각도



<그림 2> 전시 관람후 홀에서의 시지각도

2.1. 경기도립 박물관

(1) 관람객 동선에 따른 각 공간 사용도

위의 표와 같이 경기도립 박물관 관람객의 공간 사용도는 a와c 부분에서는 공통 동선에 의한 공통공간의 이용을 볼 수 있다. b와d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 동선에 의한 보다 다양한 공간의 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박물관의 다양한 공간 구성과 홀과의 관계성에 의한 이용으로써, 보다 다변화된 관람객의 욕구 충족과 박물관내의 자체 프로그램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 경기도립 박물관의 경우 하나의 관람 동선을 제공하고, 전시 관람후 홀에서의 모임을 도모하므로 홀 사용의 극대화를 꾀한다. 이는 b보다 d부분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 b, d부분에 있어서는 동선 결정 요인

시지각도를 위한 2개의 지점을 갖는다. 출입구의 중심과 안내 데스크의 중심을 잇는 선의 중심부, 전시실의 마지막 블록 공간의 중심점을 잡아 시지각도를 분석한다.

① 그림1에서 시지각에 의한 동선의 결정은 표에서의 b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림2에서의 1과 2는 정보검색실과 물품보관소의 시지각 면적⁷⁾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정보검색실과 물품보관소의 경우 모든면이 다 보이며 갈 수 있으므로 박물관을 처음 방문한 관람객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동선표의 b부분에 의해 실제 사용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그림2는 전시 관람후 마지막 전시 블록 공간에서의 시지각도로써 동선표의 d부분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1은 정보검색실의 보임을 나타내며, 2는 강당의 보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강당의 경우 박물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개방되므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이 가능

하다. 또한 샴의 경우 그림 1,2에서 모두 시지각적 범위에 들지 못하였으며,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샴을 먼저 이용하는 경우는 소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샴의 이용은 정보검색실의 이용후 또는 홀을 거쳐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간에 대한 수동적 사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 독립 동선을 갖는 공공·서비스 공간

경기도립 박물관의 경우 식당과 매점, 도서실등이 독립된 동선을 갖고 구성되어있다.

① 식당: 직원용 식당과 겸용으로 사용되며, 매점과 연계되어 외부 공원전시 관람객들을 위해 개방되어있다. 또한 실내 직원들의 동선을 위한 내부계단이 위치해있다.

② 매점: 식당과 공동으로 운영되며 반 개방형의 간단한 음료와 과를 판매한다.

③ 도서실: 박물관내의 관람자들의 자료실 이용의 측면보다 인근 주민의 보다 자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부방을 마련하여 외부로부터의 자유로운 동선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하게 배치하였다.

위와 같은 외부 독립적 공공·서비스 공간의 배치는 그 사용성에 있어 박물관이 크게 시간을 들여 방문하는 곳이 아닌 보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박물관의 기본적 목적인 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처음 방문자에 대한 공간 사용방법과 위치 확인이 난해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7)여기에서의 면적이란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아닌 해당 공간의 보이는 정도를 나타낸다.

2.2. 광주시립 미술관

(1) 관람객 동선에 따른 각 공간 사용도

<표 4> 광주시립 미술관의 관람객 동선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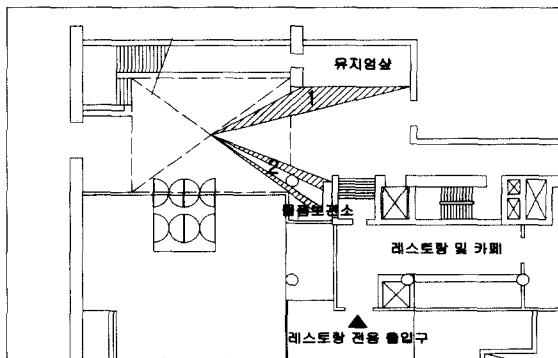
	a	b	c	d
1	입구→1층홀→	물품보관소→	2층홀→전시→1층홀→	샷→물품보관소→출구
2	입구→1층홀→		2층홀→전시→1층홀→	샷→출구
3	입구→1층홀→	샷→	2층홀→전시→1층홀→	샷→출구
4	입구→1층홀→	물품보관소→	2층홀→전시→1층홀→	물품보관소→출구
5	입구→1층홀→		2층홀→전시→1층홀→	출구
6	입구→1층홀→	샷→	2층홀→전시→1층홀→	출구
7	입구→1층홀→		2층홀→전시→1층홀→	출구
8	입구→1층홀→	샷→물품보관소→	2층홀→전시→1층홀→	샷→물품보관소→출구
9	입구→1층홀→		2층홀→전시→1층홀→	출구
10	입구→1층홀→	샷→	2층홀→전시→1층홀→	샷→출구
11	입구→1층홀→	물품보관소→	2층홀→전시→1층홀→	샷→물품보관소→출구
12	입구→1층홀→	물품보관소→샷→	2층홀→전시→1층홀→	샷→물품보관소→출구
13	입구→1층홀→		2층홀→전시→1층홀→	샷→출구
14	입구→1층홀→		2층홀→전시→1층홀→	출구

광주시립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만의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 아닌 여러 시설들중 전시부분만을 위한 공간으로 비엔날레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이 되므로 미술관1층 진입후 상설전시 관람을 위해 2층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2) b, d부분에 있어서의 동선 결정 요인

광주시립 미술관의 경우 공공·서비스공간의 이용이 1층 홀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시지각을 위한 지점은 홀의 중심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중앙 홀의 중심에서의 시지각도중 1의 경우 샷을 나타내며, 2는 물품보관소를 나타낸다. 샷의 경우 모든 면이 다 보이며, 사용에 있어서도 표의 b,d부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자유로운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의 2부분과 같이 소지품보



<그림 3> 광주시립 미술관에서의 시지각도

관소의 경우 부분적인 보임이 있으며, 사용에 있어 안내원의 지시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홀의 면적이 협소하여 전시 관람후 다른 공간의 사용없이 바로 퇴관하는 경우가 조사된다. 이는 표의 d

부분에서 실의 사용없이 전시만을 관람하고 나가는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3) 독립동선을 갖는 공공·서비스 공간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지역의 문화단지 공원 내에 위치하므로 미술관의 식당 및 카페는 외부 중앙 광장을 통해 이용된다. 또한 사용에 있어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식업체로서 그 관리상으로도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선의 경우 기존의 박물관에서의 진입동선을 폐쇄하여 외부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3. 국립대구 박물관

(1) 관람객 동선에 따른 각 공간 사용도

국립대구 박물관의 경우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다른 공간들이 배치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동선은 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차, 3차 서비스 공간과 2차 서비스 공간이 홀에 의해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강당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별도의 출입구마련이 없어 중앙 홀과 강당 앞 공간에서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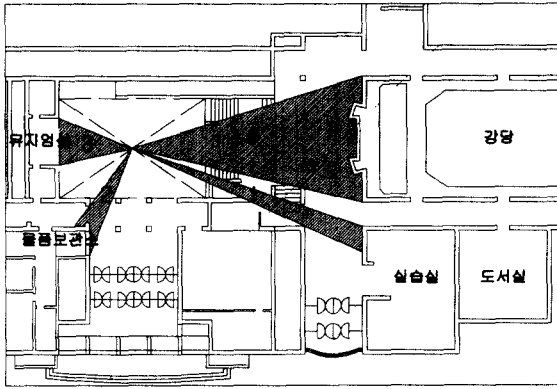
(2) b, d부분에 있어서의 동선 결정 요인

모든 동선이 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시지각을 위한 위치는 홀의 중심에서 형성된다. 대구 박물관의 경우 중앙 홀의 중심에서 시지각도를 구하면 그림과 같이 1영역은 실습실, 2영역은 물품보관소, 3영역은 뮤지엄 샷, 4영역은 강당을 나타낸다. 먼저 실습실의 경우 부분적 보임이 있으며, 동선표의 b,d부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표 5> 국립대구 박물관의 관람객 동선표

	a	b	c	d
1	매표소→안내→	샷→홀→실습실→	전시실→	출구
2	매표소→안내→	샷→홀→실습실→	전시실→	강당→출구
3	매표소→안내→		샷→세미나실→	출구
4	매표소→안내→		홀→강당→	실습실→출구
5	매표소→안내→	홀→실습실→	전시실→	도서실→샷→출구
6	매표소→안내→	홀→	전시실→	실습실→샷→출구
7	매표소→안내→	홀→	전시실→	샷→출구
8	매표소→안내→	샷→홀→실습실→	전시실→	샷→출구
9	매표소→안내→	홀→실습실→	전시실→	도서실→출구
10	매표소→안내→	홀→실습실→	전시실→	전시실→출구
11	매표소→안내→		홀→도서실→	출구
12	매표소→안내→	홀→실습실→	전시실→	도서실→샷→출구
13	매표소→안내→	샷→홀→	전시실→	실습실→도서실→출구
14	매표소→안내→	샷→홀→	전시실→	실습실→출구

샷과 홀의 사용후 순차적 사용이 이루어진다. 샷의 경우 홀의 한 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지각도 상으로도 공간의 전체면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에 있어 표의 b,d부분에 분포되어 사용되며, 특히 진입후 공공·서비스 공간 사용에 있어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다. 강당의 경우 시지각적 면적은 다른 공간들에 비해 가장 넓게 나타났



<그림 4> 국립대구 박물관의 시지각도

지만 강당의 출입구와 무관하며, 보이는 면 역시 강당 공간의 위치를 짐작하기 어렵다. 또한 박물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강당의 사용이 결정되므로 강당의 이용은 시지각적 결정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서실의 경우 홀에서의 시지각 범위에 들지 않으나 실습실과 강당의 이용후 그 사용이 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국립김해 박물관

(1) 관람객 동선에 따른 각 공간 사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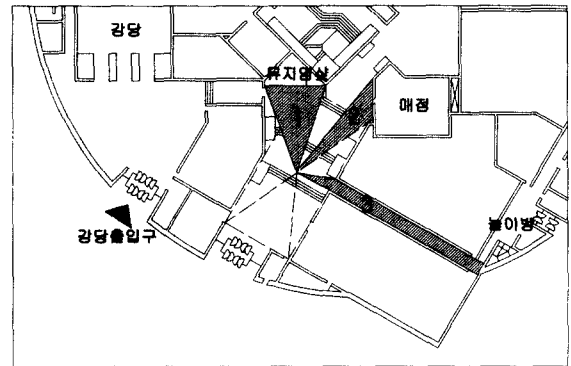
<표 6> 국립김해 박물관의 관람객 동선표

	a	b
1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홀→기획전시→출구
2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홀→기획전시→출구
3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휴게실→홀→화장실→출구
4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홀→기획전시→출구
5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홀→출구
6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놀이방→매점→홀→출구
7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샬→기획전시→매점→홀→출구
8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샬→홀→기획전시→출구
9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샬→홀→출구
10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샬→홀→출구
11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홀→출구
12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홀→화장실→기획전시→출구
13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샬→홀→출구
14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샬→홀→출구
15	매표소→안내→정보검색→전시→	매점→놀이방→홀→출구

김해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의 동선흐름이 순환적이지 않고 입구와 출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박물관 전체에 있어 단일동선을 갖는다. 또한 중앙 홀이 전시 관람후 출구쪽에 위치해있어 홀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공간이 구성되어있다. 이는 박물관 전체 동선내에 공공·서비스 공간의 동선을 따로 분리하여 덩으로써 전체동선의 혼란을 피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공간에 대한 자율성의 확보와 관람객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2) b부분에 있어서의 동선 결정 요인

김해 박물관의 경우 모든 공공·서비스 공간이 출구의 중앙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시지각도를 위한 위치는 홀의 중심이 된다.



<그림 5> 국립김해 박물관의 시지각도

국립 김해 박물관의 경우 모든 전시 관람후 출구에 홀이 면해있어, 전시에서의 강제동선과 홀에서의 자유동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또한 홀을 중심으로한 시지각도에서 1부분은 샬, 2부분은 매점, 3부분은 놀이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나타낸다.

먼저 샬의 경우 모든 면이 개방되어 보이고 있으며, 사용에 있어서도 표의 b부분에서 볼 수 있듯 가장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매점의 경우 시지각적으로 일부만이 보이고 있으며, 사용 또한 표에서 보듯 샬의 이용보다는 수동적 이용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능면에서 단순한 매점기능 외에도 간단한 도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놀이방의 경우 홀에서의 시지각 범위에 벗어나 있으면 단지 진입구만이 일부 보이고 있으며, 공간 구성상 관리영역에 속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다. 강당의 경우 외부로 독립되어 강당만의 독립된 홀을 가지고 사용된다. 따라서 강당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며, 홀에서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2.5. 부산시립 미술관

(1) 관람객 동선에 따른 각 공간 사용도

부산시립 미술관의 경우 공공·서비스 공간은 1층과 지하1층으로 나누어 구성 되어있다. 1층부는 샬과 비디오실, 놀이방등이 위치해있으며, 지하1층에는 식당과 강당 매점등의 많은 인원이 동시사용 가능한 공간들을 배치하고 있어 홀에서의 동선의 혼잡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와 같이 수직동선의 이동이 계단으로만 사용되어 입장후 안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시실로 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김해 박물관과 다른 전체순환형 동선을 갖는 박물관으로 하나의 중앙 홀에 의해 입·출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8)지하 진입은 미술관 폐관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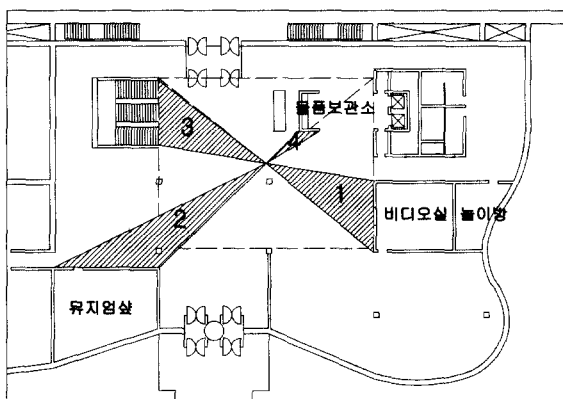
고 김해와 같은 동선 분할이 2단계로 나타난 것은 홀의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부산시립 미술관의 관람객 동선표

	a	b
1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지하홀→매점→1층홀→출구
2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비디오실→샷→출구
3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출구→
4	매표소→지하홀→매점→화장실→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샷→1층홀→출구	
5	지하홀→샷→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1층홀→비디오실→출구	
6	매표소→비디오데크→2층홀→2층전시→2층홀→지하홀→매점→샷→출구	
7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비디오실→출구
8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다목적실→비디오실→출구
9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출구
10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다목적실→비디오실→샷→출구
11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출구
12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다목적실→출구
13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다목적실→비디오실→출구
14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샷→출구
15	매표소→2층홀→2층전시→3층홀→3층전시→	1층홀→비디오실→화장실→출구

(2) b부분에 있어서의 동선 결정 요인

부산시립 미술관의 경우 2개층에서 공공·서비스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나 지하의 강당과 식당, 매점의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나타남을 보 수 있다. 따라서 시지각도를 위한 위치는 1층의 중앙 홀의 중심으로 잡고 지하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이용을 위한 동선은 계단을 통해 조사한다. 부산시립 미술관의 경우 독립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지하층과 미술관의 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지하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공간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지각도에서는



<그림 6> 부산시립 미술관의 시지각도

홀 중앙의 위치에서 지하 동선의 시작인 계단을 대상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림과 같이 1부분은 비디오실, 2부분은 유지엄살, 3부분은 계단(지하 독립운영 공공·서비스 공간), 4부분은 물품보관소를 나타낸다. 먼저 비디오실의 경우 한면이 모두 보이고 있

며 다목적실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활발한 사용을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 사용보다는 다목적실과의 연속적 사용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샷의 경우 홀에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독립적 문을 통해 출입하므로 입구의 위치에 의해 시지각에 의해 보여 지는 만큼의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홀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접근의 난점을 보이고 있다. 지하층의 이용을 위한 계단역시 모두 시지각 범위안에 위치하지만 진입후 윗층의 전시를 관람후 1층 홀을 통해 퇴관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동선에서의 독립성이 갖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품보관소의 경우 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있을뿐 사용에 대한 지시와 안내 데스크 뒤편에 위치하여 보이지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놀이방의 경우 시지각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입구 역시 홀의 후면에 향하여 있어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간들이 시지각도의 범위내에 존재하지만 공간구성상 공간들이 연계성 없이 위치해 있어 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간의 연속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람객의 공공·서비스 공간이용의 행태는 시지각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출입구나 홀에서부터 그 공간이 직접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에 따라 그 사용실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간의 계획시 전시 공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지점에서의 시지각도를 충분히 고려한 공간 구성의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행태조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동선 순환의 적극적 활용공간으로써의 홀의 이용과 공공·서비스 공간의 상호 시지각적 연관 구성 또한 관람객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결을 위한 공공 박물관의 공간 구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 기존의 박물관의 홀이 전시실을 관람하기 전의 머무는 곳이었다면 공공박물관의 홀은 보다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 공간이 밀집된 장소로서 관람객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간의 공간 구성적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다.

(2) 모든 공공·서비스 공간은 규모와 성격상 특정 지역에 대해 시지각적 접근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의 공공·서비스 공간은 시지각적 상호 연관성을 통해 순차적 이용의 가능성을 위해 군집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5개의 박물관의 조사 결과라는 조사범위의 한계성을 지나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박물관의 건축이 활발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전 건립된 박물관의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박

물관중 공공 박물관으로의 공간 구성을 갖는 설립운영자가 국·공립 단체인 박물관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론은 앞으로의 공공 박물관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문화체육부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1997.12
2. 전명현, 현대의 박물관 개념과 역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3호, 1988.6
3. 이경훈, 박물관 건축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2 권1호, 1996.1
4. 정익수, 박물관 건축의 면적 분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호, 1990.4
5. 정한수, 한국 박물관의 유형별 공공-서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8호, 1995.4
6. 강건희, 박물관 건축에서의 출입구 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호, 1995.1
7. 정한수, 한국 박물관의 유형별 공공서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8호, 1995.4
8. 이한기 박물관 공공관련 공간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0호, 1991.4
9. The Communications Design Team of the Royal Ontario Museum, Communicating with the Museum Visitor, Guidelines for Planning, 1976. 4
10. Josep Montaner & Jordi Oliverras The Museums of The Last Generation, 1986
11. J. Montaner New Museum, Prince on Architectural Press, 1990

<접수 : 2000. 10. 31>